
저자 (Authors)	정하제
출처 (Source)	공연과리뷰 25(1) , 2019.7, 218-225(8 pages) The Performing Arts & Film Review 25(1) , 2019.7, 218-225(8 pages)
발행처 (Publisher)	현대미학사 Hyundal-meehak Publishing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751722
APA Style	정하제 (2019). [영화] 기생충적 삶의 지속, 혹은 전복 : 봉준호 감독의기생충. 공연과리뷰, 25(1), 218-225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11.48.46.*** 2020/04/29 15:3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기생충적 삶의 지속, 혹은 전복

정 하 제 / 영화비평

봉준호 감독의 7번째 장편 영화 『기생충』이 관객과 만났다. 이미 72회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여 국내 관객들의 관심이 고조되었고 개봉과 동시에 빠르게 흥행하고 있다. 흥행의 성공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늘 그렇듯이 초반부 관객이 이야기에 빠져들도록 장르를 활용한다. 그리고 후반부에서 감독의 메시지가 구체화되면서 관객들은 초반부에 촌촌하게 설정했던 장면을 다시 곱씹으면서 이야기의 퍼즐을 맞추는 즐거움을 얻게 된다. 『기생충』 역시 관객들에게 이와 같은 즐거움을 제공해주고 있다.

『기생충』의 초반부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박사장(이선균)가족과 온 가족이 실직 상태인 기택(송강호)가족의 상황을 시각적인 차이로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여 기택가족이 어떻게 박사장가족 삶의 영역에 유입되는지를 그리고 있다.

먼저 기택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보여주는 방식을 살펴보자. 화면은 창문을 통해서 가로로 분할되어 있으며 배경에 창문 밖 실외와 전경에 창문 안 실내를 구성하고 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리와 술 취해 소변을 보려는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 실내는 매우 협소한 공간으로 기택, 충숙(장혜진), 기우(최우식), 기정(박소담)이 살고 있다. 기택가족의 구성원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노동력만을 제공할 수 있는 노동자 계급이다. 그들은 노동력을 제공할 직업이 없기에 더 없이 가난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으며, 사회의 하류계급에 속해있다. 그들의 삶은 다른 사람의 다리나 술 취해 흐느적거리는 사람들을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기택의 집에서 가장 웃기기도 하며 슬픈 공간이 화장실 변기가 놓인 곳이다. 화장실 안에서 변기는 그들이 생



반지하에서 냄새나는 삶을 이어가는 네가족(가장 송강호).

활하고 있는 공간보다 조금 높게 설정되어 있다. 거기로 올라가기 위한 약간의 계단도 있다. 즉 변기는 그들의 공간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변기는 수해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와이파이가 연결되고 이곳은 비가와도 물에 잠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 변기가 있는 곳은 천정과 맞닿아있어 그 정도의 혜택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즉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는 없다. 기택가족은 변기가 놓인 높이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기택의 집이 반지하임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공간과 낮은 공간을 분리하고 있듯이, 박사장의 집도 다양한 층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사장의 집은 3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1층은 도로와 붙어있으며, 대문과 차고로 구성되어 있다. 2층은 통창으로 밖을 볼 수 있는 큰 거실과 그 거실과 분리되어 있는 주방이 있으며, 3층은 가족 구성원들의 주로 생활하는 방이 있다. 거실에서 통유리로 보여지는 외부는 이 집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데, 잔디가 깔려있고 나무가 심겨져 있는 마당이다. 그 곳에서 박사장의 아내인 연교(조여정)가 오수를 즐기기도 했다. 거실 창 크기로부터 시작하여 창 밖에 보이는 풍경까지 박사장의 집과 기택의 집은 시각적 대조를 이룬다.

박사장가족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은 박사장뿐이다. 박사장은 IT기업의 CEO인데, 그 역시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가 기택과 다른 것은 지식

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그것은 또 다시 경제적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렇게 확보된 자본을 통해서 박사장과 그의 가족은 사회에서 상류계급을 이루게 되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집, 그들의 의상, 그들의 행동은 상류계급처럼 보인다.

기택의 아들 기우는 친구의 도움으로 박사장의 딸인 다혜(정지소) 과외선생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다. 기우가 집을 나와서 박사장 집으로 가는 과정은 마치 신분 상승이라는 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는 계단을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박사장의 거실에 도착했다. 기우를 시작으로 박사장 아들인 다송(정현준)의 미술 교사로 기정이, 박사장의 운전기사로 기택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관리사로 충숙까지 박사장 집에 취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기택의 가족은 점차 변하게 된다. 기우는 졸업장을 위조하여, 기정은 외국 유학생으로 속여서 박사장 가족이 필요하지만 비어 있는 부분에 노동력을 제공했다. 그러나 기택은 가족의 모의아래 기존의 운전수를 포함하여 그를 내보냈다. 그 때만해도 기택은 쫓겨난 젊은 운전수에게 미안해하는 감정이 있었다. 그러나 가정관리사인 문광(이정은)을 내보내기 위해서 가족은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그 행동에는 도덕적 주저함도 없었다. 기택가족은 하류계급을 벗어나기 위하여 비슷하게 노동력을 제공할 수 밖에 없는 다른 사람의 일을 약탈한 것이다. 그들은 더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공정한 경쟁이라는 상식

적인 도덕률마저 무시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명확하게 돈을 벌수 있는 일 자리이며, 그것을 얻기 위해 그들은 부정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찌면 기택가족처럼 이진투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기택 가족이 박사장 집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그 가족들은 의상과 말투에서 변화가 생겼다. 기택 가족은 목이 늘어난 티셔츠, 까맣게 때가 탄 란닝구, 추리닝 바지와 몸빼 바지 등의 의상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서 단정한 옷차림으로 바뀌었다. 깔끔한 와이셔츠와 자켓을 입은 기택, 가정 관리사의 청결한 의상을 착용하는 충숙, 젊은 세대의 트렌디한 옷으로 꾸미고 있는 기우와 기정. 그들은 그들끼리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욕을 포함하여)와 말의 톤과는 달리 박사장 가족과 대화할 때 조금은 교양있는 척 한다. 그들은 모여서 서로서로 축하를 하며, 박사장 가족에게 고마워했다. 기택의 가족이 모두 취업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전의 그들 삶에 비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그들은 마치 하류계급에서 벗어나 새로운 중간계급으로 신분을 상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택 가족은 겉으로 보는 변화와는 달리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 다송은 기정에게서 독특한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다송은 충숙과 기택에게서 같은 냄새를 알아챘다.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표다. 눈에 보이는 의상이나 외



향기로운 삶을 사는 사업가 가족(이선균과 조여정).

모가 바뀌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냄새는 숨기지 못했다. 즉 기택 가족이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본질 즉 그들의 정체성은 변화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냄새처럼 그들의 본질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까하는 의심마저 든다. 그들이 아무리 잘 숨기려고 노력해도 그들의 정체성은 드러나고 만다. 상류계급은 하류계급을 구분하며, 또한 상류계급은 하류계급과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다송처럼 박사장도 기택에게 그들과 다른 이상한 냄새를 맡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송도 박사장도 그들과는 다른 하류계급의 정체성을 구분해냈다. 상류계급과 하류계급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다.

때때로 하류계급이 상류계급과 사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하지만, 상류계

급은 그들만의 리그에 하류계급이 들어오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박사장은 기택이 의도치 않게 그의 사적인 영역까지 들어올 때 언제나 거부반응을 보였다. 예를 들어, 박사장이 아내가 음식을 못한다고 했다. 기택은 그래도 사모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물을 때, 박사장은 매우 불쾌한 모양으로 대답을 했다. 기택의 질문은 동일한 계급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며 또한 사적인 질문이다. 즉 기택의 질문은 박사장의 사적 영역을 공유하자는 요청일 수 있다. 그러나 박사장은 그의 세계 안에 기택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사적인 부분을 공유할 필요도 없으며, 박사장은 공유하고 싶어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들의 계급은 분명히 다른 것이며, 그들을 구분하고 있는 선도 분

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 선은 넘나들 수 없다.

『기생충』은 기택가족이 박사장가족의 집으로 유입되는 것이 중반까지의 이야기라면, 중반이 지나면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박사장가족이 아들 다송의 생일 잔치를 위해 집을 떠나자, 기택가족은 박사장 집에 들어와서 마치 주인인 양 상류계급의 삶을 즐겼다. 기우는 잔디로 덮인 정원에서 누워서 책을 읽고, 기정은 욕조에서 거품 목욕을 했다. 저녁에 온가족이 거실에서 비싼 와인을 마시면서 창밖에 비가 오는 것을 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그들의 것인 양 즐겼다. 그들의 거짓된 평화는 초인종 소리와 함께 깨졌다.

전임 가정관리사인 문광이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두고 간 것을 찾으러 왔으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주방에 딸린 창고에서 그릇 장 뒤에 있는 비밀 문을 통해 방공호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문광의 남편 근세(박명훈)가 살고 있었다. 그는 사업이 망해서 사채업자에게 쫓겼고 문광이 그를 비밀 방공호에 숨겨서 돌보고 있었다. 근세가 살고 있던 지하 방공호는 마치 개미굴처럼 좁은 길들로 이어져 있다. 이는 반지하 기택의 집이 위치한 동네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근세가 기거하는 공간은 기택의 공간과 달리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며, 근세는 기택과 달리 마음놓고 외부 공간으로 나올 수 없다. 즉 근

세는 기택보다 더 하류계급에 속한다. 근세는 그렇게라도 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것이 박사장 덕이라고 생각했다.

방공호까지 따라 내려온 충숙에게 문광은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부탁하지만, 충숙은 거절하며 문광과 근세가 집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기택의 가족이 문광과 근세에게 발각되었다. 근세는 기택 가족들을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어 박사장에게 보내겠다고 협박을 했다. 전세는 역전이 되었다. 문광과 근세가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또 다른 주인 행세를 했다. 그들 옆에서 기택 가족은 벌을 받고 있다.

기택가족은 문광과 그녀의 남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이나 문광과 근세가 기택가족을 협박하고 벌세우는 것은 모두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들은 각각 상대방을 가치있는 존재로 존중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경멸한다. 그들은 각각 서로 다른 계급에 속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사실 그들은 같은 계급에 속해있는데도 말이다. 그들은 마치 박사장이 그들에게 보내는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무엇이 그들에게 그런 착각을 만들어냈을까?

기택가족과 문광가족은 박사장가족의 호의 아래에서 살고 있거나 살았었다. 그들은 박사장가족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눈으로 보았으며, 그들이 없을 때 그들이 누린 것을 전유했다. 양 가족은 그렇게라도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 박사장가족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그들은 잠시 박사장가족의 삶을 즐긴 것으로 자신들이 박사장가족처럼 상류계급에 속한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양 가족은 사회적 제도를 변화시켜 자신들의 삶의 질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그들의 현실에 두지 않고, 상류계급이 박사장가족의 지위에 동일시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하지 않고 구별되어야 할 대상으로 타자화시키지 않았을까?

기택가족과 문광가족은 근세의 핸드폰을 두고 서로 빼앗기 위해 난투극을 벌였다. 이들의 싸움은 갑자기 걸려온

전화로 중단이 된다. 비가 많이 와서 박사장 가족은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두 집단의 싸움은 기택가족의 승리로 끝이 나고, 문광과 근세를 방공호에 가두었다. 박사장 가족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정관리사인 충숙을 제외하고 기택, 기우, 기정은 거실 탁자 밑으로 숨었다. 마치 전기불을 켜올 때, 바퀴벌레가 어두운 공간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다. 박사장 가족이 잠들자 그들은 조용히 그 집을 빠져나왔다.

기택, 기우 그리고 기정은 박사장 집을 무사히 빠져나와 진짜 그들의 집으로 향했다. 비는 하염없이 내리고, 그들은 박사장의 집에서 기택의 집까지 반복되는 계단을 내려가고 또 내려갔다. 그들이 했던 상류층 놀이는 아래로 추락하는

변화에 민감한 가정관리사(이정은)와 수상한 가정교사들.



것으로 끝난 것이다. 이 하강의 이미지들은 상류계급과 하류계급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들이 즐긴 상류계급 놀이는 하루의 꿈과 같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았다. 비를 맞으며 계단을 내려가는 그들의 모습은 영화 초반에 보여주었던 궁색함이 아니라 비참함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추락의 끝에서 아수라장같은 현실을 만났고, 그 비참함은 증폭된다.

기택, 기우 그리고 기정이 계단을 내려와 만난 현실은 물로 뒤덮인 동네이다. 그 동네는 지대가 낮아 물난리가 나서 그들이 살던 집 안팎이 물로 가득 차 있으며, 곳곳에 가재도구들이 떠다닌다. 사람들은 나와 가재도구 하나라도 건지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빠져나왔던 그 집 마당에서 박사장의 아들은 텐트를 치고 놀고 있으며 박사장 부부는 거실에서 그를 평온하게 지켜보고 있다. 동일한 상황에 대해 전혀 다르게 대처하는 상류계급과 하류계급의 삶의 질적인 차이가 또 이렇게 드러난다.

주거지를 잃어 체육관에서 공동생활을 시작한 하류계급과는 달리 다음 날 박사장은 아들의 생일잔치를 열었다. 다송이의 생일잔치를 하기 위해서 연교는 지인들을 모았다. 또한 연교는 다송이의 미술 교사인 기정도 부르고, 다혜의 영어 과외선생인 기우도 참여하게 했다. 연교는 기택을 불러서 장을 보고 돌아오면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했다. 이 냄새는 생일잔치가 벌어지다가 참사로 바뀌는 순간에 또다시 등장한다.

기우는 다혜의 방에서 생일파티가 준

비되는 마당을 내려다봤다. 한편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다른 한편에서 음식들이 준비되고 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의 밝은 웃음들이 퍼진다. 그는 다혜에게 이런 환경과 자기가 어울리는지를 물었다. 그녀는 어울린다고 대답을 했다. 그러나 그는 그들과 섞일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가 느끼는 이질감은 기택의 몸에서 나고 있는 냄새와 다르지 않다.

기우는 간헐 있는 문광과 근세와 얘기하기 위하여 방공호로 내려갔다. 거기엔 전날 방공호로 내려가는 과정에 머리를 부딪힌 문광은 죽어있었으며, 기우는 근세의 공격을 당해 쓰러졌다. 근세는 방공호에서 나와 부엌칼을 꺼내들고 파티가 벌어지는 정원을 침범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송은 쓰러졌고, 상류계급의 사람들은 놀라서 도망쳤다. 그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는 기정을 죽였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다송을 안고 있던 연교도 쓰러졌다. 음식을 내오던 충숙이 이 상황을 보고 꼬챙이로 근세를 죽였다. 기정을 안고 울고 있던 기택에게 차 열쇠를 달라고 박사장은 소리쳤고 기택은 박사장에게 차 열쇠를 던져주었다. 차 열쇠는 근세 근처에 떨어지고 박사장은 코를 막으면서 열쇠를 집었다. 이 광경을 본 기택은 칼을 들고 박사장을 죽였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사라졌다.

기택의 시점에서 본 이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다.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어 방공호에 살 수 밖에 없던 사람이 딸을 죽이고, 배경에는 누군가가 피흘리는 아

들을 데리고 가고, 아내는 딸을 죽인 그 남자를 죽이는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 전날 저녁부터 연결되어 정리되지 않은 이 혼란스러움. 하류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이 하류계급에 속해있는 사람을 죽이는 아이러니한 상황. 함께 해야 할 대상이 분노의 대상이 되어 서로 죽이고 죽는 모순적인 상황. 그리고 이 복잡한 상황을 누구하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상류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자리를 피하기만 한다. 그 상황에서 박사장이 코를 막는 행위는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고 선을 긋는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에게 경제적 원조를 해주는 좋은 상류계급의 구성원이 아니다. 기택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고, 박사장이 그은 선을 그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넘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한 아이의 생일 잔치는 상류계급과 하류계급의 모순적인 갈등상황을 노정하고 있었다. 하류계급은 상류계급이 주는 수혜를 두고 죽음의 제로섬 게임을 하고, 그 영향력은 상류사회의 영역을 침범했다.

『기생충』이 우울한 것은 이와 같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하지 않고 있

다는 사실을 에필로그에서 굳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사라졌던 기택은 다시 근세가 살고 있던 방공호로 숨어들어갔다. 그는 또다른 집주인을 맞이하여 기생충처럼 기생한다. 기우가 언젠가 돈을 벌어서 그를 구출해줄 것이라고 하지만, 그 결심은 어쩐지 공허해 보인다. 아마도 이 사회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기생충』은 많은 해석이 열려있다고 하지만, 사는 공간, 의상, 그들의 말투 등 매우 구체적인 이항대립을 통해서 상류계급과 하류계급 사이에서 발생하는 삶의 차이를 드러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계급은 더 극단적인 상태로 이분화되어 불을 보고 뛰어드는 것 처럼 보인다. 『기생충』은 이 상황을 의도적으로 재현했다. 남아 있는 것은 관객의 몫이다. 이런 사회를 그대로 바라보며 순응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꿈을 꿀 것인지. 새로운 세상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애써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P**